

남녀학생 갈라놓은 커튼



▲ 사진=esun.co.uk

이프그나스남을 장학년 팔레반이 여성 인권 캠페인 이어가는 가운데, 여학생과 남학생이 한 교실에서 벽이나 커튼을 사이에 두고 강의 듣는 현지 대학의 모습이 공개됐다.

6일 토이더 들 언론에 공개된 사진은 수도 카불에 있는 아비나 대학 강의실 한 가운데 회색 커튼이 내려져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커튼 한쪽에는 남학생만, 또 다른 쪽에는 히잡을 쓴 여학생만 앉았다.

이프그나스남의 대학들은 강의실 내에서 남녀 학생이 분리된 채 있어야 한다는 지침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이타에 따르면 지침에는 ●여학생의 히잡 착용 ●여학생과 남학생의 출입 문 구분 ●여학생에게는 여성 교수와 강의할 것 ●여학생과 남학생을 각각 다른 강의실에 배정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만약 강의실 수가 부족하거나 남자는 경우, 가운데 커튼을 치고 남녀 학생을 구분해야 한다.

카불대학에 다니는 21세 학생 안되라라는 수업에 들어왔을 때 커튼이 쳐 있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팔레반이 어드간을 장악하기 전에도 여학생과 남학생이 따로 앉기는 했지만, 이렇게 교실을 물리적으로 나누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팔레반의 한 고위 관리자는 모이타와의 인터뷰에서 "여학생은 여성 교사가, 남학생은 남성 교사가 가르쳐야 하지만, 인력과 자원이 제한되어있는 만큼 현재는 (커튼을 치고) 교시 한 명이 남녀 학생을 모두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학생들 급식 잔반 먹는 교장

중국 후난성 용저우 시내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남긴 음식을 처리하는 교장의 모습이 공유돼 이목을 끌었다.

영상 속 50대 남성은 용저우 시내 모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점심시간 동안 잔반 처리 쓰레기통 쪽으로 잔반이 담긴 급식판을 들고 오는 학생들을 줄 서서 뒤 학생들이 남긴 음식을 모두 먹었다. 또 교장은 잔반이 없는 급식판을 쓴 학생들만 급식실을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일부 학생들은 교장의 이 같은 행동에 계속되자 다시 식탁으로 돌아가 잔반을 먹는 모습도 영상에 잡혔다.

현지 언론인 소우닷컴은 "교장이 '음식 낭비하지 않기'를 실천하면서 학생들의 음식을 남비 쪼뿔기는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학교에서부터 음식물이 낭비되지 않는 교육과 주제 실천방안까지 전할만 사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교육적 분위기가 지난 해 중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음식 낭비 현상에 가슴



▲ 사진=193.com

이 아프다"고 발언한 후 일명 '행운운동'으로 불리는 잔반 처리(집시 비우기)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교장까지 나서 학생들의 잔반을 직접 먹어 처리해야 하는 식탁한 중국 내부의 분위기가 일그러진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지난 4월 '음식 낭비 금지법'을 시행한 이후 일명 '백방' (백은 방충) 캠페인도 단속도 하고 있다. 또, 외식업체에는 손님 수보다 1인분을 적게 시키는 등의 뜻의 'n-1' 운동도 벌이고 있다.

허리케인이 보여준 불평등한 현실

지난 1일 밤 10시경 뉴욕 브루클린에 사는 프리랜서 사진작가 조니 말라(40)는 불건이 담긴 비닐봉지를 움켜쥐고 자전거를 끌며 빗물이 범람한 도로를 걸으며 해자기는 남상 한 명을 발견하고 카메라에 담았다.

말라는 그가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원이었고 심했던 뒤 "폭풍우에 흔해 질은 채 음식 배달을 위해 번쩍 앞을 지나치는 그를 보고 그저 우물쭈물했다"면서 "사람들은 그저 날씨에 초점을 맞추고 음식 배달을 주문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초점을 맞추고 싶었다"며 사진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말라는 또 뉴욕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재난이 발생하면 일을 하지 않을 특권이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며 사회적 불평등을 지적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당시 배달원은 주문서와 음식을 움켜쥐고 부둣까지 초토는 복속을 끌고가고 있었지만, 역시 홍수 때문에 도로에 걸린 다른 사람들은 비교적 안전한 차량 안에서 소방관들이 구조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상황을 전한 뉴욕타임스는



▲ 사진=nypost.com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도시의 생활한 사례"라고 표

명했다. 말라는 "공개적인 영상으로 얻은 수익 1,700달러를 영상 속 배달원에게 주고 싶다. 이는 아마도 폭풍우 속에서 음식을 주문한 뉴요커들을 대신한 작은 사회의 뜻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전단지 만들기와 직접 도시 주변을 돌아다니며 사진 속 남성을 찾고 있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 (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PREMIER TAX GROUP

(714)530-0030
4128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